

네팔 사고 여객기 블랙박스 프랑스 보내 정밀분석 의뢰

한국인 탑승자父子 시신

카트만두 병원에 도착

네팔 당국이 프랑스에 최근 여객기 추락 사고 관련 블랙박스 데이터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네팔 항공당국은 지난 15일 포카라에 추락한 에티오피아 소속 여객기 ATR 72의 비행기록장치를 프랑스로 보내 사고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 여객기의 블랙박스는 지난 16일 사고 현장에서 양호한 상태로 발견됐다. 블랙박스에는 비행기록 데이터와 함께 조종석 음성 녹음 등이 담겼다.

네팔이 비행기록 데이터를 프랑스로 보내는 것은 ATR의 분사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쌍발 프로펠러를 장착한 ATR 72는 1980년대 후반부터 프랑스-이탈리아 합작사가 제작했으며 엔진은 캐나다의 프랫&윙트니사에 의해 개발됐다.

다만, 네팔 당국은 조종석 음성 녹음 기록은 자체 분석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날씨가 화창할 때 발생해 추락 원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으로 신축 국제공항의 위치와 활주로 배치 문제, 항공기 결함, 양력 유지 실패로 인한 '실속(失速-stall)'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고 여객기는 카트만두발로 포카라의 신축 국제공항과 기존 국내공항 사이의 협곡에 추락했다. 이 여객기에는 72명이 탑승했으며 전날까지 71구의 시신이 발견됐다.

한국인 탑승자로 장성 상무대 상사인 유모씨 부자(父子)로 추정되는 시신 2구도 확인됐으며 전날 카트만두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유모씨의 가족은 이날 오후 카트만두에 도착, 시신을 확인할 예정이다.

당국은 전날부터 부검 등을 마친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고 있다. 아울러 남은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독일 탄광마을을 철거 반대 시위로 연행되는 기후활동가 툰베리(19)가 17일(현지시간) 스웨덴의 세계적 청소년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19)가 17일(현지시간)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가르츠바일러 노천 갈탄 탄광 주변에서 인근 탄광마을인 뤼체라트 철거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기후활동가들은 뤼체라트를 철거한 뒤 지하에 매장된 석탄을 채굴하는 것을 막으려고 2년째 마을을 점거해오다가 최근 시작된 철거로 지난 15일 마을에서 모두 퇴거됐다. /연합뉴스

MS도 대규모 감원...빅테크 구조조정 동참

마이크로소프트(MS)가 18일(현지시간) 엔지니어링과 인사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대규모 감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이 17일 보도했다.

구체적인 감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체 직원의 1%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지난 1년간 MS에서 이뤄졌던 감원 규모보다는 훨씬 크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지난해 6월 30일 현재 MS 직원 수는 미국 내 12만2천명과 해외지사 9만9천명 등 모두 22만1천명이다. MS는 앞서 지난해 7월과 10월 감원을 했으며, 채용도 동결한 상태다.

MS는 그동안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과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플랫폼, 고객관계관리(CRM)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 등이 잇따라 대규모 감원에 나선 것과 달리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대규모 감원에 나설으로써 최근 경기 악화 전망과 IT업계 성장둔화 등에 따른 빅테크(거대기술기업)의 대규모 감원 대열에 동참하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MS의 감원에 IT분야의 구조조정이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MS는 이에 대한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페루 반정부 시위현장서 연막탄 던지는 경찰 페루 수도 리마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17일(현지시간) 한 경찰관이 연막탄을 던지고 있다.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은 이날 리마 시위 합류를 위해 전국 여러 곳에서 출발해 이동중인 수백명의 시민들에게 평화적인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폼페이오 첫 만남서 "날 암살하려는 것 안다"

폼페이오 회고록 방북 비하 소개 "작고 땀에 젖은 사악한 남자"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018년 북미정상회담 사전접지 작업을 위해 방북했을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정은 암살'을 주제로 농담을 나눴던 사실을 공개했다.

폼스뉴스는 17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담긴 '한 치도 물러서지 말라, 내가 사랑하는 미국을 위한 싸움'(Never Give an Inch, Fighting for the America I Love)이란 제목의 폼페이오 전 장관의 회고록 발췌본 일부를 입수해 보도했다.

회고록은 오는 24일 발간된다. 책에서 폼페이오 전 장관은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었던 2018년 3월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비밀 방북했던 때를 기술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그것은 내가 계획했던 부

활절 주말이 아니었다. 내 비밀 임무는 2018년 3월 30일 성(聖)요일(부활절 직전 금요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이륙하면서 시작됐다"며 "목적지는 북한 평양이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 중 한 곳으로 향했다"고 적었다.

그는 "임무는 극소수에겐만 알려진 완전한 비밀이었다"며 "내 목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지 못하고 사실상 현재의 고조된 위협으로 이어진 과거의 실패한 노력을 바로 잡는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처음 대면했을 당시를 떠올렸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 작고 땀에 젖은 사악한 남자는 온갖 매력을 동원해 여색한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했지만, 확실범에 어울리는 수준이었다"면서 "(김 위원장은) '국장(Mr. Director)'이라고 입을 열면서 '난 당신이 나타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

을 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와 우리 팀은 이 순간(김정은과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을 위해 준비했었지만, 암살에 대한 조크는 '그가 나를 맞이할 때 말할 수도 있는 목록'에는 없었다"고 당시의 당황했던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나는 CIA 국장이었고, 그래서 그의 기지 넘치는 발언을 이해할 수도 있었다. 나는 유머로 응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서 그는 "위원장님, 나는 여전히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며 "그 대화 직후 찍은 사진에서 김정은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는 내가 농담을 했다고 확인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특사 방북 이후 약 40일 만에 국무장관 자격으로 재방북하는 등 여러 차례 평양을 찾아 북미정상회담을 조율했다.

오는 2024년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폼페이오 전 장관은 출마 여부를 올봄에 밝히겠다고 지난달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브라질 검찰, 브라질리아 폭동 39명 첫 기소

테러 혐의는 적용 안해

브라질 검찰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대통령궁과 대법원, 의회 등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39명을 처음으로 기소했다.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방송 TV 글로부와 CNN 브라질, AP통신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수도 브라질리아 3부 기관에서 폭동을 일으킨 시위대 중 39명을 쿠데타, 무장 범죄단체 결사, 공

공기물파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

예방적 구금 청구와 함께 4천만 헤알(96억원) 상당 자산 동결 명령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민주적 법치 제도를 훼손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대안적 과도 정부를 수립하려 했다"고 밝혔다.

다만, 테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브라질 형사소송법상 테러 혐의로 기소하려면 인종·민족·종교에 근거한 혐오나 편견이 관련 범법 행위에 포함돼야 하는데, 이번 사태에서는 이

런 요소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폭동 행위자-자금 지원책-허위사실 유포 등 세 갈래로 나눠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관련 혐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기소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검찰은 대선 불복 폭동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체포한 안데르송 토레스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수사자료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머물러 있다 지난 14일 귀국한 토레스 전 장관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미국에 두고 왔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현지 매체 글로부는 보도했다. /연합뉴스

<h3>전원주택 (1채) → 7,000만</h3> <p>(토지 분양 중) 장성담 5분, 광주 20분, (6M도로 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컨하우스 ② 소형 주택 ③ 전기,수도,배수 완비 ④ 주말 하우스 최고 ⑤ 잔디,나무,일체 포함 <p>★ 토지분양 → 전원주택 토지 (100평, 150평, 200평)</p>	<h3>상가매매(상무지구)</h3> <p>(매매, 임대) 권리금 없음</p> <p>▶ 중심 상업지구 (유형 적합)</p> <p>(6층, 7층) = 140평</p> <p>시세 → 10억</p> <p>➔ 급매 7억</p> <p>보3천 월 380만 (용 4억5천)</p>	<h3>경매교육 [특수 전문반]</h3> <p>기초반, 중급반</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 분)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td> <td>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td> </tr> <tr> <td>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td> <td>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td> </tr> <tr> <td>서구 화정동 (주택) ▶</td> <td>감정가 1억9천만 → 최저가 1억2천</td> </tr> <tr> <td>광산구 박호동 (주택) ▶</td> <td>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3억</td> </tr> <tr> <td>광산구 하남동 (공장) ▶</td> <td>감정가 36억 → 최저가 16억</td> </tr> <tr> <td>장성 동화면 (과수원) ▶</td> <td>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5억7천</td> </tr> <tr> <td>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td> <td>감정가 54억 → 최저가 30억</td> </tr> <tr> <td>김제시 하동 (아파트 293세대) ▶</td> <td>감정가 130억 → 최저가 65억</td> </tr> </table> <p>010-6670-9800</p> <p>010-2614-9801</p>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	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	서구 화정동 (주택) ▶	감정가 1억9천만 → 최저가 1억2천	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3억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 → 최저가 16억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5억7천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정가 54억 → 최저가 30억	김제시 하동 (아파트 293세대) ▶	감정가 130억 → 최저가 65억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																	
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																	
서구 화정동 (주택) ▶	감정가 1억9천만 → 최저가 1억2천																	
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3억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 → 최저가 16억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5억7천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정가 54억 → 최저가 30억																	
김제시 하동 (아파트 293세대) ▶	감정가 130억 → 최저가 65억																	